

당뇨환자가 받아야 할 검사

식후 2시간의 혈당검사로 확실한 진단 필요

차례

1. 당뇨병을 추측할 수 있는 조건들
2. 혈당의 검사
3. 당부하시험
4. 당뇨병의 판정기준
5. 요당검사
6. 당뇨병 진단 뒤의 필요한 검사들

당뇨라는 것은 다른 병과는 달리 완치라는 개념이 아닌 반치라는 개념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치료법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러가지 근거없는 치료법이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제들이 우리 당뇨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월간 당뇨에서는 당뇨전문지로서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당뇨인들에게 일자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당뇨병상식이라는 고정판을 설정해 앞으로 당뇨란 무엇인가 하는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당뇨합병증까지 광범위하고 폭넓게 다름으로써 당뇨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당뇨병의 진단은 먼저 당뇨병의 증세와 요당의 증명에 의하는 것이나 당뇨병이 있어도 증세가 별반 없는 수도 있고, 당뇨도 늘 나오는 것도 아니다.

위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당뇨병은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많아서 어느 병원에서나 질병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요당을 검사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1. 당뇨병을 추측할 수 있는 조건들

- (1) 연령, 체형: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비만하여 있는 사람은 당뇨병을 한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 (2) 가족력: 가까운 친척 중에 당뇨병환자가 있는 사람은 당뇨병의 소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 (3) 자각증세: 갈증, 다뇨, 다식, 체중감소,

권태감 혹은 부스럼이 잘 생긴다는 등
의 당뇨병에서 나타나기 쉬운 자각 증
세가 있는 경우.

- (4) 당뇨병을 합병하기 쉬운 질환: 고혈압,
담석증, 궤양, 간염, 내분비질환 등이
있거나 위절제수술을 받은 사람
- (5) 당뇨병 발병을 촉진하는 약품을 사용
하고 있는 사람: 고혈압에 쓰는 타이아
자이드(thiazide)계의 강압제나 신경통
에 쓰는 스테로이드(Steroid)제품을 계
속 내복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요당검사를 실시
해야 한다.

그리고 가벼운 당뇨병에는 아무때나 요당
이 나타나지 않고 식후에만 나타나는 수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식후 2시간의 소변을
검사하여야 하며, 만일 요당이 증명되면 혈
당검사로 확실한 진단을 받아보도록 해야할
것이다.

2 혈당의 검사

당뇨병의 진단은 요당만으로는 내릴 수
없다. 당뇨병이 아니면서도 요당이 나올 수
있고, 오히려 혈당이 낮으면서도 나올 수 있
기 때문에 반드시 혈당을 검사하여 당뇨병
의 필수조건인 고혈당인 것을 발견하여야만
당뇨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혈당의 검사는 이른 아침 공복 때에 일정
량의 당질을 먹게한 뒤 일정한 간격의 시간
을 두고 피를 뽑아 혈당값을 측정하는 당부
하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3. 당부하시험

(1) 시험전과 시험중의 주의

시험 전날은 평상 때처럼 식사하여야만
한다. 적게 먹어서는 안되며, 특히 당질을
줄여서는 안되며, 이는 굶거나 당질을 적게
먹으면 이상값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긴장을 피하고 침착한 기분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중에는 운동을 하
지 말며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고 한다.

(2) 여러가지 당부하시험

① 포도당부하시험: 일반적으로 50~100g
의 포도당을 물 200~300cc에 타서 마
시게 한 뒤에 30분 또는 60분마다 3시
간에 걸쳐 피를 뽑아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또한 입으로 먹을 수 없는 환자에 대
하여는 포도당을 정맥내에 주사하여
혈당을 검사하는 방법도 있다.

② 포식시험: 쌀밥 300g 이상과 과자를 먹
인 뒤에 검사하는 방법으로 집단검진
때에 당뇨병을 발견하기 위하여 고안
된 것이다.

③ 스테로이드·포도당 부하시험: 포도당
부하시험으로 당뇨병이 의심스러울 때
나 잠재성 당뇨병을 검사하는 방법으
로, 스테로이드(부신피질호르몬)는 인
슐린의 작용을 억제하므로 이 점을 이

당뇨병 상식

용하여 당뇨병 진단에 사용해야 한다. 혈당값은 측정방법에 따라 틀리므로 반드시 측정법을 적어두어야 하며, 또 한 정맥혈, 모세관혈 및 동맥혈에 따라서도 혈당값에 차이가 있고, 같은 정맥혈에 있어서도 전혈(全血)로 측정하였을 때와 혈장(血漿)으로 측정하였을 때는 서로 다르므로 반드시 기록하여 둘 필요가 있다.

종합병원에서는 흔히 자동분석기를 사용하여 정맥혈의 혈장포도당을 측정하고 있다.

4. 당뇨병의 판정기준

보통 임상에서 사용하는 포도당 75g 부하 시험에서

① 공복때 혈당값이 $120\text{mg}/100\text{ml}$ 이거나 또는 당부하뒤 2시간까지의 혈당값이 모두 $200\text{mg}/100\text{ml}$ 이상일 때 당뇨병으로 판정한다.

② 공복때 120mg 미만이고, 당부하뒤 2시간 값이 $140\sim199\text{mg}$, 최고값(1/2이나 1시간 뒤)이 200mg 이상인 때를 내당능저하(잠재성당뇨병)라고 말하며,

③ 공복때 100mg 미만 당부하뒤 2시간 값 140mg 미만 및 최고혈당 값 200mg 미만인 때는 정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단 한번의 당부하시험으로 이상을 나타냈다고 하여서 곧 당뇨병이라고 진단내

리는 것은 위험한 일로서 당뇨병의 유전력, 증세, 그 밖의 임상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고나서 진단을 붙여야 한다.

당뇨병의 진단은 당부하뒤의 혈당값의 높음을 가지고 내리는 것이나 혈당값은 마치 혈압과 같아서 연속적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이상과 정상을 일정한 기준으로 명확히 짜기는 힘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임상적으로는 위와같은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

5. 요당검사

요당은 가정에서도 검사할 수 있다.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매일 의사가 지시한 일정한 시간에 한번 이상은 요당검사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에 따라서는 도리어 신경질이 되어 나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요당을 검사함으로써 당뇨병 치료에 대한 반성을 한다는 점으로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혈당검사를 하지 않고 요당검사로 만 치료의 기준을 삼는다면 병세의 악화를 면키 어렵다. 요당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혈당이 $180\sim190\text{mg}/100\text{ml}$ 이상으로 올라가 야 요당이 양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당이 음성이라고 혈당이 정상화 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바빠서, 피霏기 싫어서 등등의 핑계로 요당검사만 가지고 요당이 양성으로 나타나면 치료에 열을 올리고 요당이 음성으로 되면 치료를 태만히 하는 환자들을 많

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현재 매우 간단하게 효소의 반응을 이용하여 요당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시험지를 오줌속에 담근 뒤 곧 끄집어 내어 변색의 강도를 보면 되는 것이므로 매우 간편하다. 그리고 이것은 포도당에만 작용하므로 푸른 빛으로 변하면 요당이 틀림없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이 시험지의 결점은 오랫동안 보존할 수 없고, 햇빛이나 습기 등에 의하여 변질되기 쉽다는 것과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하면 그 변화가 억제된다는 점들이다.

6. 당뇨병 진단 뒤의 필요한 검사들

당뇨병으로 진단이 내려지면 다시금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검사가 필요하다.

- (1) 24시간의 요당량
- (2) 가슴 X선사진(심, 폐)
- (3) 안과검사(망막증, 동맥경화, 백내장)
- (4) 심전도검사
- (5) 신기능(요단백, PSP 시험 및 기타)
- (6) 혈압
- (7) 내과적 진찰
- (8) 그 밖의 필요한 검사

초진 때에 환자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치료방법을 세우고, 당뇨병의 치료와 합병증이 있으면 그 치료까지도 시작하게 된다.

글 · 편집부

당뇨병의 고민 해결!

혈당측정기의 베스트셀러
원터치 투, 원터치 베이직,
그리고, 인슐린 펌프로
당뇨관리가 훨씬 간편하고도
정확해졌습니다.



고객 사랑의 실천으로
오직 당뇨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걸어온 **당뇨전문회사**
당뇨에 관한한 최고임을 자부합니다.

(주)국제의료기 인천지점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5-49
전화:(032)345-8700, 팩스:(032)345-8701

*당뇨에 관한 모든 문의를 환영합니다.